

추밀공파대종회 이사회개최



△4.30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추밀공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4월 30일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고기풍년'에서 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권영빈사무국장은 성원보고를 하고 시조태사공께 명배를 올리고 세월호 희생자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였다.

권혁승 회장은 인사말로 지방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며 금년 하반기 회지발간 계획이나 각 문중에서 협력하여 좋은 원고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또 인터넷 카페를 권오진씨가 수고하여 개설(카페주소는 DAUM의 검색창에 안동권씨추밀공파대종회)하였으니 많이 가입하여 좋은 글 올려달라고 하였다.

영빈국장은 회지 17호 발간계획을 설명하고 수록내용은 창화공계(昌和公系)는 18세 병사공(兵使公)부터 21세 박사공까지, 충정공(忠淸公)계는 17세 안숙공(安肅公)부터 19세 양정공까지, 정헌공계(正獻公系)는 18세 예참공(禮參公)부터 20세 대사헌공까지 하기로 발표하였다.

안건으로써 추밀공, 충헌공 단소를 정헌공계 화산부원군 문중 토지에 조역되었는데 화산부원군 문중에서 세항비 150만원 지원을 건의해와 토의결과 고시가격으로 구매하는 안으로 하되 수용지 양을 경우 추밀공파대종회에서는 예산이 없으므로 연간 약간을 지원하는 안으로 답신을 하기로 하였다. (사무국장 권영빈)

부호장공파종회 임원회의 개최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 회장, 권병균) 임원회의가 5월 13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개최하였다. 부호장공파종회 권중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오는 5월 20일 개최되는 '경노잔치 행사'와 '파조(派祖) 할아버지 향사(享祀)문제'에 관하여 1시간 동안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노잔치 때 점심식사 메뉴와 행사 때 마다 수고하는 파종회 부녀회에 약간의 헌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파조 향사문제는 향사를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오는 5월 20일 경노잔치 겸 임시총회 때 이 안건을 상정, 그 결과에 따라 향사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동시의회 권남희(복야공파) 옥동 예비후보가 일원정을 방문, 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부호장공파종회 임원회의 모습

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은 사내 옥동 '착한오리식당'에서 오리주물럭을 곁들여 점심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경노잔치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검교공파 서울종친회 4월 월례회

검교공파 서울종친회(회장 권오운)는 지난 4월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송파소재 '산들해' 한식식당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월례회를 가졌다.

검교공파 서울종친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권오운 회장, 태웅, 용태 감사가 선출되었으며 4월28일 모임에서 임원 개인이 있었는데 고문에 권태일, 태춘, 영길, 오선, 부회장에 권인호, 태광, 태욱, 영주, 정성, 총무부장에 권영기, 운영부장에 권오철 쪽 친으로 확정하였다.

권오운 회장은 인사말에서 스즈겝고 재미있는 종친회를 만들자 스즈겝은 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종친회로 만



△송파 소재 「산들해」식당에서 권오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들자 스즈친 간 상부상조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활기찬 모임을 가졌다.

〈권오운 회장〉

참사(黃海道 觀察使)로, 1600년(선조 33년) 2월8일 나주 목사로 발령을 받고 근무했는데 모두 명성이 났었다. 1602년(선조 35년) 7월2일 승정원(承政院)으로 들어와 동부승지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다시 우부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1604년(선조 37년) 6월21일 공신등급에 3등에 녹훈되었던 것을 2등으로 하였는데 후에 다시 3등으로 내리고 같은 해 6월25일 특별으로 효충장의선무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이란 훈공을 내리고 길창군(吉昌君)으로 봉하였는데 1604년(선조 37년) 7월12일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고 문하며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우부승지에서 한성부 우윤(右尹)으로 직을 옮겼다. 그해 9월1일 선조는 권협에게 명나라 동유적(童遊擊)을 잘 잡대하여 남쪽으로 내려 보내 대마도와 잘 협상토록 하라는 명을 받고 한강에서 동유적을 전벌연(童遊擊)을 후하게 배풀어 보냈는데 그 일이 있은지 2일이 지난 9월3일 일을 잘 처리하여 효행이 있었다 하여 호조참판으로 자리를 옮겼다.

1604년(선조 37년) 12월2일 대사헌(사헌부의 장관)으로 관직을 옮겼는데 11월 옥사가 있었다. 가을에 승진되어 전라도 관찰사(全羅道 觀察使) 겸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다. 1606년 4월2일 함 배성이 삼태성 아래 북극성 사이에서 나와 땅위성과 천원성 자리 아래로 옮겨가서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불안하였는데 1606년(선조 39년) 4월24일 남원부의 군기소에서 불이나 보관된 군기가 모두 소실되었다는 보고였다. 그리고 부의 노비들의 신공(身貢) 및 각종 수군의 가포(價布)와 목면(木棉·목화) 등 물건도 다른 곳간이 없어 궁고고 한 구석이 보관해 두었는데 모두 불타는 남원부사 정사호(鄭賜湖)의 보고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남원 군기소에서 일어난 불이 권협이 무능하여 부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일어난 일이라고 논란이 계속되어 권협에게는 큰 손상이 주었다.

그 때 당시의 명망을 지닌 어느 고을 수령이 세력을 믿고 법을 농락하자 권협이 축출하고 조금도 봐주지 않았으나 그 사람이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가 요직(要職)에 등용되어 말하기를 "권협처럼 법을 지켜 청렴하고 근신한 사람을 어찌 쉽게 얻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였으니 곧은 언리로 행하는 고인의 기풍이 있는 사람이 라고 이를 만나다. 권협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지 2년이 지났다. 관찰사는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조종조의 법인데 전에 있던 하삼도의 관찰사가 임시로 영문(營門)을 설치한 관계로 2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그런데 권협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지 2

년이 지났으니 직을 교체하라는 헌부의 건의가 있자 선조는 1607년(선조 40년) 6월5일 예조판서로 제수했다.

선조가 병이 들어 위독했다. 1608년 2월 선조는 교지를 내리기 전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광해는 옥새와 인장을 넘겨받고 왕위를 계승했다.

선조가 승하하자 대북인의 상소가 빗발쳤다. 예조판서의 자리에 있는 권협이 일자리를 공경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명으로 글을 올려 탄핵 상소가 빗발쳤다. 상소 내용은 중상모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권력을 잡은 대북인을 달할 장사가 없었다. 상소내용은 권협이 앞서 전라도 감사로 있으면서 몸가짐을 신중히 하지 않고 오로지 여자의 말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조판서로 돌아오는 날에 짐을 실은 수레가 길을 메웠으므로 여론이 오랫동안 치지 않고 있습니다. 권협에게 책임을 물어 파직시키고 용서치 마옵소서...하였다.

그리고 선조가 승하하였는데 예조판서가 상례(喪禮)를 주관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온 관례였으므로 신중히 일을 보되 오직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절을 준수하니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광해군이 임금이 된지 6년 권협이 관직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두문불출한지 5년이 지난 1614년 광해군은 다시 관협을 불렀다. 광해군은 권협에게 승정대부(承政大夫)로 진질하였다.

조정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대북에 협조를 소홀히 하는 자를 조정에서 몰아붙여 죽였으므로 서인 중 조정에 남아 있는 몇몇 대신들도 몸을 움츠렸다. 대북의 횡포가 날로 심해가고 명나라에서도 전원이 돌아 온 나라를 긴장시키고 있었다. 이 무렵 만주에서 누루하치(여진족)의 세력이 커져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후금이라 칭했다. 광해는 이를 대비하여 대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다. 이때 명나라에서 우리 조정에 10만의 지원군을 요청해 왔다.

1616년 광해는 "명나라에 동진 날을 축하하러 가는 사신을 원사신 권영주, 부사신 목대홍, 서장관 정흥원 등이 표문을 가지고 가도록 하고 권협을 변무사(邊務) 관(南牧官)의 조진이 들어왔다. 6월에는 내외(內互)의 종인(宗人) 돈이 들어오고 7월에는 서원정(書員廳) 5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8월에는 영보당(永報堂)의 대문이자 서원의 외삼문(外三門)인 견심문(見心門)이 이루어졌다. 이 견심문에는 이보다 5년 뒤인 정조 14년 경술년(1790)에 여강인(羅江人)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현락(李憲洛)이 기문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권진택 후손〉

〈다음호에 계속〉

세월호의 비보 권혁규어린이

영웅호칭 권혁규·최혜정·박지영·이광욱...

끝내는 눈물,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어린 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故)권혁규군"이라고 한 뒤 박대통령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5월20일 중앙일보7면 영웅 박대통령 담화에서) 어린 영웅은 전 국민의 눈시를 뜨겁게 했다.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전일 KBS 저녁9시뉴스에도 권지연(5) 가족에 대해서 보도된바 처럼 세월호 침몰 때 네 가족 가운데 홀로 구조된 5살 소년 권지연 양과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준 뒤 실종된 오빠 권혁규(6)군이 짙은 사신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경노잔치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오빠 혁규 군은 동생이 넘어 지기라도 할까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동생 손을 붙잡고 있다. 이제 겨우 다섯살 동생보다 한 살 위인 오빠는 생사를 오가는 사고 현장에서 동생부터 챙겼다. 권양은 가족은 이날 제주도에도 마련한 새 보급자리로 이사를 하던 중이었다. 아버지 권재근(50)씨, 엄마 한운지씨, 오빠 권혁규(6)군 등 일가족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 권씨 부부는 제주도의 귀농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 제

주에서 갈굴 농사를 지으며 두 남매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다. 뉴스이 권씨 지인의 말을 빌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악착같이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참사로 '한 배'를 탔던 가족 가운데 권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생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권양은 구조된 뒤 오빠가 구명조끼를 입혀 줬다며 가족들의 생사를 물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고 동아 일보는 전했다. 또한 권양은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되어버린 혼자 남은 아이 권지연 양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권문(權門)의 젊은 후예(後裔)들의 비보(悲報)에 많은 애도의 전화와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애정(哀情) 어린 관심이 요구되니 전국에 계신 뜻있는 종친에게 후원을 제언(提言)해 본다. <권범준 본원기자>

평후공(平厚公)종중 임원회의

평후공 종회(회장 권학주)는 지난 4월 12일 오전11시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동대횃집'에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를 개최 하였다. 권순주 총무의 사회로 상례환사에 이어 권학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투철한 송조 정신으로 현조 제향과 묘역관리 등 중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이어서 권학승 추

밀공파 대종회 회장의 격려 말이 있었으며 끝으로 권순주 총무의 2014년도 상반기 종합활동 사항보고 및 종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협의한 뒤 동해바다의 회를 곁들여 방산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나누다 오후 2시경 산회 하였다. <원주지역 명예기자 권학주>

雲谷書院誌

2. 운곡서원 연혁(雲谷書院 沿革)

그리고 2월 19일에는 강당(講堂)인 영보당(永報堂)의 주춧돌을 놓아놓아 기공을 세우고 들보를 올렸다. 그 상량문(上樑文)은 28세손 좌승지(左承旨) 엄(嚴)이 지었는데 거기에서 태사공이 "군사를 맞아들여 원수를 갚은 것은 실로 조국(祖國) 신라를 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랑(張良)이 한(韓)나라를 위해 한(漢)나라를 도운 것과 같은 것이지 본심이 새로운 봉작에 있지 않았으니 주(周)나라 왕성(王姓) 희공(姬公)이 노(魯)나라에서 식음(食邑)을 받되 주(周)나라를 생각하여 오히려 옛 땅에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과 같으므로 이에 먼 후손이 길이 추모하는 감회를 일으켜 경주에 정성을 바치는 의전을 닦는다"고 하였다. 또 이 영보당의 기문(記文)은 서울에 있는 전일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서 외손인 완산(完山) 이현경(李獻慶)이 지었는데 거기에서 "예에서는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옛적에 주(周) 문왕의 스승 여상(呂尚)이 5대의 묘소를 봉성(封禪)하여 모두 주(周)나라로 장사(葬事)지낸 것이 여우가 죽을 때 그 머리를 태어 수합한 것이 들어왔다. 5월에는 연양 관간(陽陽縣監) 권정우(權正遇)의 조전과 남쪽관(南牧官)의 조진이 들어왔다. 6월에는 내외(內互)의 종인(宗人) 돈이 들어오고 7월에는 서원정(書員廳) 5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8월에는 영보당(永報堂)의 대문이자 서원의 외삼문(外三門)인 견심문(見心門)이 이루어졌다. 이 견심문에는 이보다 5년 뒤인 정조 14년 경술년(1790)에 여강인(羅江人)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현락(李憲洛)이 기문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4월에는 안계(安溪)의 참판 이현목(李憲穆)이 조전과 백지(白紙)를 보내오고 옥산서원에에서도 조전과 백지를 보내왔으며 월전(月川)의 마을 돈, 입암(立岩)의 종중 돈, 오금(吾琴)·두동(頭洞)·갑산(甲山)의 마을 돈이 들어오고 안동의 대종중에서도 수합한 돈이 들어왔다. 5월에는 연양 관간(陽陽縣監) 권정우(權正遇)의 조전과 남쪽관(南牧官)의 조진이 들어왔다. 6월에는 내외(內互)의 종인(宗人) 돈이 들어오고 7월에는 서원정(書員廳) 5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8월에는 영보당(永報堂)의 대문이자 서원의 외삼문(外三門)인 견심문(見心門)이 이루어졌다. 이 견심문에는 이보다 5년 뒤인 정조 14년 경술년(1790)에 여강인(羅江人) 첨지중추(僉知中樞) 이현락(李憲洛)이 기문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당으로부터 남쪽으로 낮은 담장을 에두른 곳에 작은 문 하나가 있고 편액(扁

贈領議政行禮曹判書吉昌府院君諱悛

증 영의정 행 예조판서 길창부원군 휘협



△금동묘역(위) 길창부원군 협의 묘소가 있으며 후손들의 묘가 있다.)

그곳은 대개 농민과 노비를 주축으로 하고 명망있는 유생이나 전직 관리가 의병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었다. 이때에 한강이 남 고을은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들판에는 푸른 풀이 없었는데 소매를 떨치고 가서 주야로 백성을 어루만지고 안심시켜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치고 돌아왔다.

1596년(선조 29년) 6월25일 권협이 홍문관 교리로 제수 받고 어전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경상 좌병사 김응서의 급보를 받았다. 이날 13일에 왜적의 배 150척이 와서 정박하였다고 하였다. 왜적이 바다를 건너 온데 대한 보고였다. 김응서의 장계를 받은 조정에서는 중신과 비변사의 당상들과 대신들을 임시로 하여 대책을 숙의하였다. 소서행장(小西行長)과 가동청정(加藤清正)이 새로 호남에서 피를 마시며 맹약(盟約)을 한 뒤 다시 준동하려고 하였다. 조정의 논의가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명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선조가 신하들을 살펴보고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사람은 권협보다 나 나은 사람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명나라에 보내야 할 일이니 속히 시행함이 옳을 것이다. 권협을 명나라에 보내도록 조치하라. 명나라 황제에게 알리는 주문 내용에 모르시기 권협이 가는 일과 이변에 관한 두 조항을 언급해야 한다. 다른 일은 성지를 기다린 뒤에 하도록 하라" 선조는 이덕형에게 거듭 명하였다.

권협은 그때 응교(應敎)로 있다가 당상으로 승진되어 고급사(告急使)가 되어 다음날 명을 받고 오시에 입궐하여 선조를 알현했다. "짐의 명을 받들고 급히 명나라에 가서 구원을 청하고 소임을 다하고 돌아오도록 하라.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있음을 명심하라"

1597년(선조 30년) 2월 초 권협은 급히 달려가 연경(燕京)에 도착하여 병부 군문(兵部 軍門)에 국서(國書)를 전달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통렬히 개진하였다. 병부상서가 공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 산천의 형세, 도로의 근원,

왜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하였으며 그대 나라가 방어한 곳이 얼마나 되고 비축해 둔 군량이 얼마나 되며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하였다.

권협은 평소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익혔으므로 화공(畫工)에게 입으로 설명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며 그림을 만들어 올리니 병부시랑이 그림을 펼쳐놓고 권협에게 일일이 따져가며 물어보자 권협이 막힘 없이 대답했다. 권협이 그곳을 물러서자 사림이 풍역관 표정구를 불러 권협의 관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서 말하기를 "저런 사람이 일국(一國)에 제일가는 재주인데 어찌 흔하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곧바로 심의 보고하여 남북의 전함(戰艦)과 보병(步兵)을 징발하고 또 산둥(山東)의 군량을 조달해 공급하기로 하였다.

권협은 천자(天子)의 큰 은혜를 우려라 사례하고 머리를 조아리다 피가 흘러내린 얼굴로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고갈(枯渴)의 처지에 놓여 조석으로 아무 상을 치고 있으니 서강(西江)에 타놓는 다 하더라도 제때에 구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평(永平)에는 남병(南兵)과 군량이 많으니 영평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으므로 수레와 소로 교체해 실어 나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인(大人)께서 천자의 명을 받들어 주선하여 도탄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때 필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을 줄로 여깁니다"고 하니 군문이 권협의 말을 받아들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청을 인준하였다. 권협이 또 근각(筋角)과 초황(硝磺)을 요청하여 싣고 돌아왔는데 군자(君子)들이 말하기를 "그의 민첩은 따라갈 수 있으나 그의 충성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다.

1597년(선조 30년) 8월10일 연경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권협을 선조는 호조참의로 관직을 제수하고 예조에 명하여 명나라 황제에게 은혜에 감사한 표문을 지어 보내라 명하였다.

권협이 1598년(선조 31년)에 황해도 관

〈다음호에 계속〉